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세준	학번	
이메일	Knai3553@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 (국가) U.S.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기 간	2020.01.03 ~ 2020.12.12		[귀국일: 2020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0일

신 청 인 : 박 세 준 (인)

●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내가 있던 콜로라도 덴버의 인근의 날씨는 4계절이 뚜렷한 편이며, 한국 날씨와 유사하지만 좀 더 건조하고 기온의 변화가 커서 겨울에 20도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고 9월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겨울이 길고, 눈이 4월말까지 오지만,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여 눈이 빨리 녹는 편이다.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강하여 덥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며 습도가 높지않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덴버는 고지대 이기 때문에 호흡하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으나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가족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적응했었다. 전반적으로 기후는 한국과 유사하나 생활하기 더 좋고 공기가 맑아 둘째아이 아토피가 나았으며 시야가 좋아 경치가 잘 보인다.

지리적 위치: 미국 전체에서 보면 중부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서쪽으로 유타, 남쪽으로 뉴멕시코, 북쪽과 동쪽으로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캔자스가 위치한다. 덴버 서쪽에 로키산맥이 위치하여 경치가 훌륭하고 캠핑, 등산, 하이킹, 스키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이다. 다양한 자연경관이 있는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와 가까운 편이라 로드트립에 유리한 위치이지만 동부로 가려면 비행기편이 유리하다.

생활관련: 전년도 KDI 학생이었던 같은 회사 직원 숙소와 차를 take over 받아 초기생활 적응에 큰 문제는 없었다. 집 위치는 UCD에서 남쪽 약 15마일 떨어진 Arapahoe county의 Centennial 시였으며 RTD역과 25번 highway에 가까웠다(6565s Syracuse way, Centennial). Take over를 받지 않으면 집은 보통 출국전 Zillow 등을 통해 자녀 학군과 대학원 까지의 거리, 주변생활여건 등을 참고하여 검색하고 미국에서 집을 본 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는 한국에 가져갈 용도로 새차를 구입하거나 중고는 carmax, craigslist, 딜러샵 또는 한인마트 신문을 통해 산다고 한다. 가끔 정착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 소개받아도 될 거 같다. 그리고 기타 물품등은 근처에 IKEA, Costco, Walmart 등이 있어 구매하기 편한 입지였다. DMV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받고 운전면허증은 콜로라도에서는 별도 교육없이 한국면허증과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검사를 받으면 1-2주 뒤에 받을 수 있어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편했다. 보험은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해할 수도 있고 Progressive나 GEICO 앱을 활용해 적당한 수준으로 계약하면 약 1,000불 정도한다. 대중교통으로는 RTD나 Uber를 활용했다. 택시는 없다.

자녀학교: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 주소지에 따라 학군과 학교가 정해진다. CherryCreek학군 이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에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있었다. 옆 더글라스 학군은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 있다고 하니 집을 정하기전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청에 등록하니 학생번호와 학교에 배정을 해주었고 학년은 우리나라와 학기제가 다르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지고 학교에 요청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미국 올 당시 큰아이는 2020년 한국나이 12살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8살이 되었다. 큰애는 반학기 낮취 1월에 4학년2학기, 둘째는 1학기 올려 1학년2학기로 보냈다. 공립학교라 학비는 없고 식비, 준비물, 일부 기부금 등이 있다. 학교에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도시락 싸도 되고 학교에서 급식해도 된다. 스쿨버스나 자가등원 가능하고 8시에 학교를 시작해 2시40분에 끝나며 전학년이 동일하다. 방과후도 신청하면 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는 체스클럽을 했다. 한반에 코로나 이전 20-25명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고 미술, 체육, 음악은 특별교실로 이동해 담임이 아닌 선생님께 배운다.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내가 다닌 UCDenver의 SPA(School of Public Affairs)의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수준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수업은 주로 North classroom이라는 대규모 강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1-2개의 수업은 SPA 건물에서도 이루어진다. 위치는 덴버 시내에 있어 RTD로 접근하기 편했고 학생지원시설과 캠퍼스도 훌륭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교육은 미국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구성과 진행 수준이 높았다.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글로 포스팅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Capstone 작성은 여기 오기전부터 걱정했었지만 팀으로 작성 및 발표가 가능하고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일정대로 따라하니 큰 난감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다만 KDIS와 학점 웨이버, 1년만의 석사학위 과정이다 보니 과목 선택의 폭이 적은 것은 아쉬웠다.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과목: UCDenver에서 수강한 과목은 Capstone 포함 총 8과목이다. 5과목은 CORE 과목으로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 The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Professional Ethics,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그리고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였다. (KDIS에서 동일 과정을 수강한 경우, elective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나머지 2과목은 elective 과목으로 선택과목이며 나는 Political Advocacy와 American Public Service Environment를 수강했으며, 마지막 1과목은 졸업을 위한 Capstone Seminar 이다. UCD는 겨울학기를 등록할 수 있어 1월초 약 2주만에 Elective 한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봄에 4-5과목을 듣고 여름에 1과목을 듣고 나면 가을에 Capstone 수업과 논문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나는 경제과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나머지 과목은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았다.

수업방식: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20-30명 정도 듣는 수업이 있고 5-8명 정도 수강한 과목도 있었다. 주로 토론식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공동으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위주의 미국식 수업이어서 공공행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으로 과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행정 개론, 역사, 다양한 이론과 실무, 리더십, 정책결정과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행정, 정책, 정치에 대한 부분을 배우며 개념을 숙지하고 수업 일정대로 참여하며 과제를 충실히 제출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토론식 수업이 많다 보니 원어민이 아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꾸준한 영어 공부가 적응에 도움이 된다.

캡스톤: 미국의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과목이 Capstone인데 이거 때문에 UCD 지원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아무래도 영어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논문을 쓴다는 것이 두려워지긴 하지만 KDIS와 UCD에서 수업받은 내용을 기초로 Capstone 담당 교수와 논의해 가다 보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다. 그리고 UCD에서 그룹 캡스톤도 배려해 주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 역할을 나눠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겨울학기, 봄학기 때 수업을 많이 들어놓으면 캡스톤 1과목을 하기엔 시간은 충분하여 귀국 전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 아파트, 음식, 기타활동 등

아파트: 내가 살았던 아파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Take-over 받은 집으로 3층정도의 낮은

미국의 전형적인 아파트이다. 여기는 주로 회사가 관리하는 렌탈형태의 아파트가 많으며 대부분 빌트인이 되어있어 가구와 TV만 있으면 된다. 우리 4인 가족이지만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1개가 있는 집을 이어받아 좁지 않을 까 걱정했지만 실평수가 50m2가 넘고 안방이 크며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이 많아 힘들지 않았다. 월임대료는 내가 살던 1LDK는 \$1,425이고 관리비는 \$60/1달 정도, 전기료와 인터넷 요금은 별도이다. 방2개, 욕실2개인 우리 단지의 이웃집은 약 \$1,850 정도라고 들었다. 보증금은 \$200정도로 우리 아파트는 저렴한 편이었다.

음식: 음식은 주로 집에서 많이 해서 먹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 주로 테이크 아웃해서 집에서 먹는게 편하고 좋았다. 집에서 15-20분 거리에 H-mart 한인마트가 있어 한식도 많이 해 먹었고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어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다.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구글맵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 burger, pizza, 다양한 남미음식, 한국식당, 중국집, 베트남 쌀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접했고 음식 맛도 좋았다.

여행: 주로 여행은 아이들의 방학때와 추수감사절 연휴에 많이 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여행은 조금 힘들어 서부와 뉴멕시코 쪽으로 Road trip을 많이 했다.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로드트립을 할 때 서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번 여행 나오면 주로 여름방학해 30-45일간 여행을 했지만 덴버는 서부와 가까워 나는 3번에 걸쳐 한번에 10-15박 정도로 나눠서 다녔다. 콜로라도 주 근처에 있는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와이오밍,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경관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많아서 아이들과 즐길 거리가 많았다. 운전도 차가 밀리지 않고 직진 위주의 넓은 도로로 한국보다 운전이 힘들지 않았다. 국립공원 연간회원카드가 가족에 \$80이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며 4학년은 국가에서 무료카드를 발급해준다.

기타활동: 미국은 지역의 커뮤니티시설이 잘 활성화 되어있다. 주로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책, DVD, 게임타이틀도 대여할 수 있고 영어 ESL, 아이들 미술, 컴퓨터, 만들기, 책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해서 등록하면 된다. 아내와 나는 영어 ESL을 6개월에 \$50로 등록하여 들었는데 사람들도 알고 영어공 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Recreation Center라고 불리는 체육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소규모 프로그램실, Gym이 있어 다양한 운동과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연간회원, 월간회원도 되고 프로그램별 등록도 가능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아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놀이용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어 애들과 수영장을 많이 다녔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야외수영장이 6월부터 9월까지 이용 가능하여 여름에는 매일 수영할 수 있어 좋았다. 쇼핑은 근처 아울렛이 있어 의류, 신발, 가방을 저렴하게 살수 있고 동네에도 Marshall, TJmax 등 저렴하게 이용가능 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변이 시립, 주립 공원이 있는데 한국의 공원, 놀이터보다 넓고 아름다운 경치를 적은 사람밀도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덴버 다운타운에 놀이동산, 동물원,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놀이동산, 농구장, 야구장 등이 있어 다양한 미국문화를 즐길 수 있고 가끔 Free-day 가 있으니 확인하고 가면 공짜로 입장이 가능하다.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도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도 다양하다.

●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KDIS에서 1년간의 영어로의 교육과정은 2년차 대학에 적응하고 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

다. 외국인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덜하고 토론위주의 수업이라 현지에서 적응하기 편했다. 가기 전엔 잘 몰랐지만 덴버에는 한인마트, 한인식당, 한인병원, 미장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외국대학에서의 교육도 미국의 행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미국인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토론하면서 그들은 어떤 문화, 생활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미국에서 1년간 살고 아이들은 미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이질감 없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영어도 배워서 나중에 미국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큰 소득인 거 같다.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출입국 이동경로: 출입국 시 대한항공을 이용해 LA를 경유했다. 경유시간은 미국에 들어올 때는 짐을 찾아 다시 옮겨 실어야 되기 때문에 5시간인 항공편을 이용했는데 조금 길었다. 4시간 정도면 적당할 거 같다. 귀국 시에는 수화물이 자동 연계되어 2-3시간 정도면 가능하다. 미국 국내선은 대한항공과 연계된 Delta를 활용했다. 중간에 국내 비행기 여행시 덴버지역 여행사인 Frontier가 저가 항공으로 저렴하고 그외 United나 Delta도 여행일정에 따라 저렴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비자는 i-20를 받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병원 및 예방접종: 병원은 갈일이 많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한인병원, 한의원 등을 활용했다. 교육생은 학교보험, 가족은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환급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9월에 독감접종을 코스트코에서 받았다. 병원도 하지만 주로 미국에서는 대형마트에서도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가서 신청하고 맞으면 된다. 교육생은 학교 보험으로 무료이며, 가족은 1인당 \$20정도 냈었다. 예약도 가능하지만 평일 오전 오후에는 당일 접종도 가능했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동안 너무 즐겁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여행과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학교에서 직접 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온 거 같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다양한 Community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방학 중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다. KDI에서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가고 싶은 나라와 2년차 대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간다면 행복한 1년을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